

이익 줄고 연체율 10년래 최대… 2금융권, 건전성 ‘경고등’

금감원, 상반기 전업카드사 8곳
순익 1.2조… 전년비 2739억 ↓

연체율 0.11%p 늘어난 1.76%
고정이하여신비율 1.30%로 상승

상호금융, 카드사 등 제2 금융의 수익은 줄고, 연체는 증가해 건전성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의 순이익은 1조22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3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연체율 1.76%로, 전년 말과 비교하면 0.11%포인트(p) 상승했다. 카드대출채권 연체율 상승폭이 0.16%p로 가장 컸다. 이어 카드채권 연체율이 0.12%p,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0.10%p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0%로 같은 기간 0.14%p 상승했다. 동시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6.3%로 전년 말 대비 1.8%p 하락했다.

문제는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순이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반기 기준,



연체율 상승 등으로 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한 은행권 대출 창구 앞 모습. /뉴스시

2024년을 제외하면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지난 2022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사 순이익은 2022년 1조6243억원에서 2023년 1조4168억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 상반기에는 1조4990억원으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다시 2739억원으로 급감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다. 연체율은 2022년 말부터 올 6월까지 1.21%→1.63%→1.65%→1.76%로 꾸준히 상승해 지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0.85%→1.14%→1.16%→1.30%로 상승했

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회사가 빌려준 돈 가운데 회수가 어려운 ‘부실 가능성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곧 여신회사의 부실 채권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순자본이 충분하더라도, 순이익이 감소하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기조가 장기화되면 여신전문사들의 건전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연체율 상승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어져, 실적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제2금융권 전반에 건전성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

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23곳의 지점이 자본잠식에 빠진 것으로 알려지며 건전성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새마을금고 연체액은 15조 2124억원이다. 경기도 3조 8000억원, 서울이 2조 8532억원, 대구가 1조 2981억원으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농협 상호금융의 대출 연체금은 17조8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3조4943억원 증가했다. 연체금액은 경기도 4조1042억원, 경남이 2조 4159억원, 경북이 1조9484억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 차주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전성 문제에 금융당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metroseoul.co.kr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보험’

삼성화재는 9일 계절별 발생하기 쉬운 위험을 집중 보장하는 ‘삼성화재 다이렉트 4계절보험’을 출시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위험에 대해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계절 단위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계절 구간은 ▲봄(3~5월) ▲여름(6~8월) ▲가을(9~11월) ▲겨울(12~2월)로 구분된다.

보험료는 40세 남성 기준 ▲봄 4230원 ▲여름 7730원 ▲가을 7720원 ▲겨울 1만1410원으로 산정된다. 청약일 기준 직전 1년 내 가입 이력이 있는 고객은 재가입 시 5%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보험금청구권 신탁’ 출시

한화생명은 생전 지정한 방식에 따라 가족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면 계약자 사망 시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 생전 지정한 수익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종신보험을 유연하고 의미 있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일시금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으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 사망보험금을 원하는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푸본현대생명 10일 ‘푸본현대생명 데이’

푸본현대생명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고객초청 행사와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창립 7주년에는 고객초청 행사로 10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고객과 함께하는 ‘푸본현대생명 데이(DAY)’ 행사를 시행한다.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야구장을 찾는 야구팬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경품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는 푸본현대생명의 영업가족 및 고객 등 200여명이 함께 참여한다.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활동은 플리마켓(Flea Market)과 헌혈 캠페인 등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플리마켓은 임직원들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기부받아 판매한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지원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헌혈캠페인은 혈액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의료현장에 도움을 주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軍 초급간부, 3년간 월 30만원 내면 ‘2300만원’ 준다

국방부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
월 납입액 정부서 같은금액 지원
이자까지 더해… 내년 3월 출시

내년 3월부터 직업 군인을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이 출시된다.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가 매달 3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중·장기 복무 지원자도 감소세였던 만큼, 단기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금이 유효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중·장기 복무를 시작하는 초급간부를 위한 ‘청년간부 미래준비적금’의 출시를 준비한다. 월

최대 3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은행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대 납입(3년, 1080만원) 시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약 23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미래준비적금은 장병 전용 상품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응하는 상품이다. 매달 55만원을 납입 가능한 장병 적금보다 월 적립액은 낮지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장병적금(18개월·육군 기준)보다 2배가량 길다. 또한 미래준비적금은 장병적금과 달리 정부지원금이 매달 지급돼 받을 수 있는 이자액도 더 많다. 기획안에 따르면 실질 금리는 연 10% 수준으로 통상 연 4% 안팎인 은행권 적금 대비 2배 이상 높다.

미래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오는 4분기 예정된 군인사법 개정 이후 임관

하는 6~10년 이상 의무복무 확정자 및 단기복무자 중 장기 복무 선발자다. 미래준비적금 예산을 포함한 2026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말 처리된 만큼, 국방부는 국내 주요 은행들과 상품 발매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가입 가능한 은행과 은행별 우대금리 요건 등은 추후 발표된다.

3년이라는 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된 미래준비적금이 저조해진 초급간부의 중·장기 복무 지원율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간부 선발률(모집 목표 대비 총원율)은 64.9%다. 지난 2019년의 94.1%와 비교해 5년 만에 29.2%포인트(p)나 하락했다. 지난 몇 년간 급여를 비롯한 장병의 처우는

거둬들여 개선됐지만, 초급간부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초급간부 지원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군 장병의 급여는 병장 기준 150만원이다. 2021년의 61만원과 비교해 89만원 늘었다. 2022년 도입된 장병 적금의 정부지원금을 고려하면 병장의 급여는 총 205만원이다. 하사 1호봉 기본급(200만900원) 및 소위 1호봉 기본급(201만7300원)보다도 많다. 특히 장병 급여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해,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을 고려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국방부는 매년 1만명 안팎의 중·장기 복무자의 대부분이 미래준비적금의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혜택이 비슷한 장병적금의 가입률은 98.4%에 육박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우리은행, 시니어 위한 ‘내리사랑 안심신탁’ IBK기업은행 ‘NFT지갑 서비스’ 시범운영

가입금액 1000만원 부터

우리은행은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손쉽게 접근 가능한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내리사랑 안심신탁’은 기존 신탁 상품 대비 최소 가입금액을 대폭 낮춰 1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금전으로 한정하되,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을 포함해 운용의 폭을 넓혔다. 또한 기존

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단순화하고, 고객에게는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이 주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연대용신탁은 금융기관이 고객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생전에는 다양한 금융자산을 기초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금융 상품이다.

최근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노후 자산관리와 상속을 설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안승진 기자

IBK기업은행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산에 발맞춰 ‘대체 불가능한 토큰지갑(NFT)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NFT지갑 서비스’는 고유성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인 NFT를 보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지갑 서비스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이 직접 NFT 자산을 관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서비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으로 IBK카드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고객들에

게 실제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입크페스티벌 티켓 응모자 중 1750명에게 NFT 형태의 티켓을 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NFT지갑을 신규 개설한 고객에게는 가입 기념 NFT를 발행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NFT지갑 서비스 시범 운영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진입의 첫 단계”라며 “앞으로 고객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